

조선왕조 최고의 명문가 안동권씨 가문, 권근

‘조선왕조 최고의 명문가 안동권씨 가문, 권근’은 박상하 작가가 저술한 조선왕조 5백 년을 이끈 5대 명문가의 이야기 <나는 삼한갑족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안동권씨 종보에 게재해도 좋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신는다. 박상하 작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역사는 가장 진실한 통찰을 준다는 일념 위에,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베네디토 크로체의 철학을 다해, 현대적 인문학 가치로 사회성 짙은 역사를 재발견하는 글쓰기를 지속해 오고 있다. 발표 작품으로는 <나는 퇴계다>, <나는 율곡이다>, <한국인의 원형을 찾아서>, <율곡 평전>, <상업의 역사>, <명성황후를 찾아서> 등 다수가 있다.

편집자주



3대 대제학, 권근·권제·권람

권제權躋는 권근의 아들이다. 개국공신의 아들로 출사했다.

여러 자리를 옮겨 다닌 끝에 사헌부 감찰(정품)이 되었으나, 대사헌을 거슬러 상서한 일로 파면되었다(1413). 이듬해인 27세 때 과거에 장원 급제했다. 사간원 헌납(정5품)·병조정랑·예문관 응교를 역임했다. 성균관 사예(정4품)·의정부 사인·사헌부 집의(종3품)·전라도관찰사(종2품)·집현전 부제학(정3품)·예조참판(종2품)·대사헌에 이어 한성부판윤(정2품)에 제수되었다. 매형 이종선이 잘못을 저지르자 과실을 숨기려고 거짓 보고한 일로 탄핵을 받았으나, 개국공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벌을 받지 않고 파직되었다(1426).

이듬해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는 인수부의 윤(종2품)을 맡은 데 이어, 진헌사에 제수되어 북경에 갔다가 돌아왔다. 북경에서 돌아왔을 때 형 권천이 병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므로 형을 문병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 후 한성부판윤·경창부의 윤(종2품)·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가 한성부판윤으로 돌아왔다.

작고한 아버지 권근의 뜻을 이어 “진시집설”의 집필을 모두 마쳤다. 이 저서에 ‘천견록’을 붙여 간직하다가, 세종에게 보급하기를 청했다.



양촌 권근 삼대 묘소

다시금 예조참판에 제수된 데 이어 윤희, 설순 등과 함께 역사서 자치통감과 함께 “통감훈의”를 찬집纂集(여러 글을 모아 엮음)하라는 어명을 받았다.

그 뒤 이조판서(정2품)로 승차했다. 이듬해 집현전 대학에 제수되면서 아버지 권근에 이어 2대째 대학에 올랐다. 다시 예조판서에 제수된 데 이어, 해령군惠寧君 이지가 품사 상사로 북경에 갈 때 부사로 수행했다.

지중추원사(종2품)에 제수되었으나, 소송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복귀했다. 이어 춘추관의 지춘추관사(종2품) 신개 등과 함께 “고려사”를 찬술하여 올리고, 안지 등과 함께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을 수찬修撰(서책을 편찬하여 펴냄)할 것을 상소했다.

다시 의정부 좌참찬(종2품)에 제수되고 의금부 제조(종1품)를 겸직한 데 이어 의정부 우찬성으로 있을 때 공조참판 안지 등과 함께 ‘용비어천가’ 10권을 지어 올렸다. 책이 출간된 지 열하룻날 뒤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58세였다.

하지만 권제가 죽은 뒤에 “고려사”를 찬술할 때 비리가 있었다며 고신과 함께 시호를 추탈追奪(죽은 자의 죄를 논하여 생전의 벼슬을 없앴) 당했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기 위해 김종서 등을 죽인 계유정난(1453) 때 아들 권람이 공신이 되면서 복권되었다.

“세종실록”에 권제의 졸기卒記가 전해진다. “...충명하고 학문이 넓으며, 말을 잘하고 특히 시사時事에 대해 말하길 즐겨했다. 그러나 기침에 혹하여 처자를 대접하기를 매우 박하게 하여 가도家道가 바르지 못하니 세상이 이를 좋지 않게 여겼다. 그의 딸은 일찍이 첩과 사이가 좋지 못했으므로, 그가 발로 차 죽었다. 뒤에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자신의 집안에 관계되는 긴요한 절목을 빠뜨린 일에 연루되어 사판에서 이름을 지웠다.”

저서로는 “지제집”, “역대세가” 등이 있다. 신개와 함께 펴낸 “고려사”가 있으며, 정인지, 안지 등과 함께 저술한 ‘용비어천가’가 있다.

권람權攄는 권근의 손자이자 권제의 아들이다. 문종 즉위년(1450) 35세에 향시와 회시에서 모두 장원한 뒤,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에서 4등으로 급제하며 아버지 권제가 거처한 사헌부감찰, 집현전 교리(종5품)에 제수되었다.

단종 즉위년(1452)에 문종의 명을 받은 수양대군

이 “역대병요의 음주를 편찬할 때 참여하게 되면서, 수양대군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 그에게 한명회를 천거했다.

이후 수양대군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한명회와 함께 단종을 지키는 황보인 등의 종적을 염탐한 데 이어, 이듬해 안평대군이 반역의 음모를 꾸민다고 수양대군에게 알렸다. 나아가 한명회 등과 세력을 모아 안평대군 측의 김종서, 황보인, 조극관 등을 효수하고 정난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이후 동부승지(정3품)로 재임하면서 처자를 간택하여 풍저창 부사(정품) 송현수의 딸을 단종비로 책비冊妃[비빈(妃嬪)으로 책봉하던 일] 했다. 그 후 우승지로 전임했다.

세조 1년(1455) 이조참판(종2품)이 되고, 길장군 이탄 시호를 받으며 사은사에 제수되어 중국을 다녀왔다. 이듬해 이조판서로 승차한 데 이어, 김질·정창손이 성삼문의 불계不軌(역모를 꾀함)를 고한 것을 처리한 공로로 이조판서 겸 집현전 대학학, 길창군에 제수되었다. 할아버지 권근, 아버지 권제에 이어 자신까지 3대가 대학학에 오른 사례는 일찍이 세상에 없었으며, 이로써 조선왕조에서 맨 처음 최고 명문가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세조 3년(1457) 판중추원사(정2품)를 지내고, 신숙주 이극감과 함께 “신찬국조보감”을 편찬했다. 같은 해 의정부 우찬성(종1품)에서 우의정(정품)으로 승차했다. 그러다 탄핵을 받고 우의정에서 물러났다가 좌의정으로 복귀했다.

세조 9년(1463) 길창부원군으로 벼슬길에서 물러나 “동국통감”을 감수한 뒤 세조 11년(1465)에 타계했다. 향년 49세였다.

“조선왕조실록” 졸기에 “만년에 미쳐 병 때문에 집을 나갔는데, 권람이 산업을 경영함에 자못 부지런하여, 일찍이 남산 아래에 집을 지었으나 제도가 지나치게 사치하고, 또한 호사스러운 종이 방종하여 사족의 신분을 능가하니 참찬 이승손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권람이 죄를 묻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기롱하였다....” 라고 쓰여 있다.

저서로는 “소한당집”이 있고, 할아버지인 시인 응제의 시를 주석한 “응제시주”가 있다. 신숙주 등과 국조보감”을 편찬하고, 수양대군이 “역대병요”의 음주를 편찬할 때 참여했다.

<골>

제3차 정관개정 소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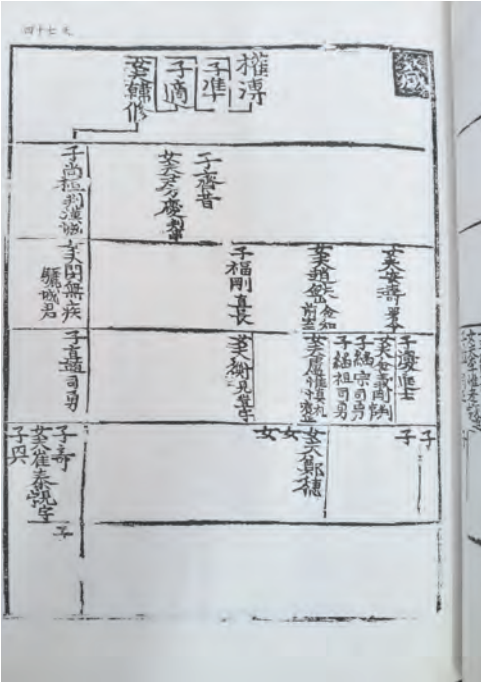
제3차 정관개정 소위원회가 3월 13일 11시에 대종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관개정 소위원회 위원장 권영하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위원으로 권철환 수석부회장(안동종친회장), 권오을 상임위원(부회장), 권병돈 상임위원(전 정관공 종중 회장), 권정길 상임위원, 권광택 상임위원, 권감현 전례위원, 권행완 편집국장(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오을 위원은 제4조 회원 자격에 분회의 정회원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남녀 및 안동권문으로 입적된 부(婦)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본회의 정회원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남녀 및 그 배우자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위원들은 전원 찬성하고 향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며느리만 안동권문의 일원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1476년에 제작된 한국 최초의 족보 성화보(成化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성화보에는 국재공(薊齋公) 권보(權溥) 자신을 포함하여 아들 다섯과 사위 세 명까지 모두 아홉 명이 봉군(奉君)을 받았다는 구봉군(九奉君) 기록이 있다. 이때 사위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은 여부(女夫) 이제현(李齊賢)으로 나온다. 또한 국재공의 큰아들 창화공(昌和公) 권준(權準)의 아들 권적(權適)의 사위로 청주 한씨의 한수(韓脩)가 나온다. 한수의 아들 한상질(韓尙質)의 묘는 창화공 권준의 묘 바로 뒤에 위치하는데 창화공 권준의 묘는 1990년까지만 해도 실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91년 도굴본으로 신고된 묘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곽 내부에 벽화가 그려진 고려시대 벽화묘소임이 세상에 알려졌다. 출토된 묘지석을 분석해 보니 창화공 권준의 묘임이 밝혀졌다. 묘의 내부 석곽은 장방형의 평면구조로 동서북 3벽 내면과 문비석 내면에 각각 인물상이 그려져 있고 천장석 중앙에는 성진도(星辰圖)가 그려져 있었다.

600여 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찾은 창화공의 묘는 그 긴긴 시간 동안 청주한씨 문중에서 관리해 왔다 한다. 창화공의 묘와 한상질의 묘는 앞뒤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뒤의 봉분은 한상질의 묘이고 앞의 봉분은 한상질의 부장품이 묻힌 부장묘로 알려졌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도굴꾼들은 이 부장묘를 도굴하다 뜻밖의 벽화가 그려진 묘임이 드러나자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묘소임을 직감하고 누군가에 의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신고되었다 한다. 평범한 일반적인 묘도 아니고 벽화가 있는 묘라고 하니 전문가관과 세간의 관심이 얼마나 컸겠는가. 출토된 묘지석을 바탕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벽화가 그려진 앞의 묘는 한상질의 부장품 묘가 아니고 창화공 권준의 묘로 밝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



한수는 창화공 권준의 손녀 사위

가. 그 이유는 한수가 창화공 권준의 둘째 아들 권적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한수의 아들이 한상질이며 한상질은 한명회의 할아버지이다. 단지 사위라는 이유로 그런 역사적 아이러니가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 역사적 배경 또한 궁금하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이후 명나라에 국호를 정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다. 이때 사신으로 자청하여 간 인물이 한상질이다. 태조 이성계는 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조선(朝鮮)과 화령(和寧)으로써 국호(國號)를 고지기를 청하게 하였다.(태조실록 태조 1년 11월 29일) 한상질은 ‘조선’과 ‘화령’이라는 두 개의 안(案)을 가지고 명나라에 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들인다.(태조 2년 2월 15일) 고려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사망하자 자제위를 설치하여 그 저전함을 달래다 자제위인 흥륜과 최만생 등에 의해 암살되었다. 신하가 한 나라의 군주를 시해한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때 창화공 권준의 증손자인 권진이 자제위로서 공민왕 시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집안이 온전할 리 없었다. 풍비박산이 났다. 형제들은 몸을 숨기기 위해 뽕뽕이 헤어져야만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창화공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겠는가. 이때 사든 집안인 청주한씨 한상질 집안에서 외가 어른의 묘 바로 뒤에 한상질의 묘를 쓰고 제사 등을 지내며 창화공의 묘를 관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창화공 권준의 묘는 파주시 향토유적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정관개정 소위원회는 제9조에 감사가 임원의 기능에 명시되어 있는데 감사는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자리를 옮겨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열띤 토론을 했다. 회의는 14시를 넘기고서야 겨우 끝이 났다.

권행완 편집국장

추밀공파대종회 회관모금 조성

추밀공파대종회 임원과 파친 여러분! 함께 합시다! 67.7% 달성했으면 10억 100%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찬란한 안동권문의 후손입니다. 35만 파친의 추밀공 회관 건립할 수 있습니다. 파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1. 헌성금 목표액 : 10억원 [문중 6억5천만원 개인 1억원 보유현금 3억원]

2. 인센티브 : 헌성비 및 동판에 문중과 헌성자 덕을 영구히 칭송

헌 성 비 : 문중 및 개인 모두 성명과 헌성금 기록. 회관동판 : 문중 1천만원 이상 개인 300만원 이상

아래 헌성하여 주신 종중회장 및 종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14일 현재 입금액 677,600,000원(67.7% 달성)

昌和公系 玄城君宗中 1010만원, 後北派宗中 1000만원, 双松宗中 500만원, 수원화성 100만원, 화상비봉구포종중 500만원

忠靖公系 정간공 종중 1억, 判書公계 驛丞公宗中 300만원, 九吉문중(權寧斗유사) 100만원

平厚公系 宗會강릉문중 1050만원, 工參公문중 1000만원, 展力副尉公종중 500만원, 興성종중 200만원, 거처사공종중 500만원, 摠制公系김창군종중 500만원, 양정공종중 500만원, 상주문중300만원, 翼平公系백운공 300만원, 安襄公系대사헌공종중 500만원, 翊衛公 500만원, 通德郎公종중 200만원, 漣川公系양근공종중 200만원

齊簡公系 宗中 1500만원, 敦寧公宗中감찰공계 500만원, 양목제공 200만원, 靈靖公宗中 300만원, 寧得公宗中 200만원, 安肅公系石洲公종중 1000만원

正獻公系 梧軒宗中 1000만원, 學猿公종중 權東周 100만원

後孫個人 權寧鮮고문, 權景皙명예회장, 權永烈화천그룹회장 各 1000만원, 權寧赫고문, 權泰義고문, 權寧桓고문, 權赫昇명예회장, 權五敦회장, 權五鉉이사, 權純澤(도봉) 各 300만원, 權寧柱부회장, 權炳善창화공회장, 權永漢북아공파고문(부산), 權奇峻이사, 權光澤이사 各 200만원, 權純鳳이사, 權公範이사, 權寧甲이사, 權萬朝이사 權赫燦부회장, 權五廷부회장, 權五周부회장, 權泰平부회장, 權点夏부회장, 權松雄부회장 權得基부회장, 權寧佑중무위원, 權純福중무위원, 권장섭중무위원, 권혁만이사, 권도영부회장, 권태현부회장, 權五準 각 100만원, 權五鹿부회장, 權炳吉(시흥), 權五翊종원, 權寧學중무위원, 권순택(도봉구), 권병후이사, 권영례부녀회고문(부산), 권상찬부회장 各 50만원, 權東遠, 權學周, 權赫柱, 權純求, 權寧寬, 權泰永, 權赫遠, 權瑿植, 權五正(예천) 各 30만원, 權晩集이사, 權純晩중무위원, 權景皙명예회장, 權純浩, 權五相 各 20만원, 권영감(관악), 권승택(노원), 권중원(중앙), 권희원(시흥), 권순일(고양), 권오곤(진주), 權寧植(용인), 권덕림총무(부산), 권진성부회장(부산), 권상호(부산) 各 10만원

헌성금 입금계좌 : 농협 317-0009-2118-41 안동권씨추밀공대종회 연락처: 사무처장 권경일 010-3039-7282 추진위원장 권경석 010-5201-5495

추밀공파대종회 회관조성추진위원장 권 경 석